



농촌진흥청, 전남 보성 풀사료 3모작 재배 현장 살펴

- 이승돈 청장, 4일 생산 농가·보성축협·관련 단체 관계자 만나 의견 들어
- 겨울·여름 풀사료 이어 재배, 농지 연중 활용·생산량 확대
- 장비 이용 등 현장 어려움 살피고, 지원 방안 논의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일대 풀사료 3모작 실증 재배지를 찾아 사료피 생육 현황을 살피고, 가축분 퇴비 활용에 대해 들었다.

보성축협은 2024년부터 보성읍 일대 논 1.5헥타르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사료피 1차→사료피 2차’로 이어지는 풀사료 3모작을 실증하고 있다.

지난해 실증 결과, 수분을 제외한 건물 기준 연간 풀사료 수확량은 헥타르당 20.3톤이었다. 작물별 생산량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7.2톤, 1차 사료피 6.7톤, 2차 사료피 6.4톤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는 작물 재배 때마다 가축분 퇴비를 헥타르당 20톤씩 사용해 가축분 처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경지 유기물 공급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사료피 수확 시 기존 풀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별도의 장비 도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날 이 청장은 생산 농가와 보성축협, 풀사료·한우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3모작 확대에 따른 생산비 부담과 퇴비 살포 시기에 집중되는 장비 확보 등의 어려움도 수렴했다.

이 청장과 참석자들은 풀사료 생산 확대에 필요한 재배 기술 보급과 현장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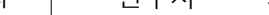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은 풀사료 생산성과 재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와 사료피 신품종을 개발하고, 동·하계 작물을 연계한 연중 생산 작부체계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아우라’와 사료피 ‘만온’은 수분을 제외한 건물 수확량이 기존 품종보다 각각 15%, 13% 많아 같은 면적일 경우, 풀사료 생산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두 품종을 보성축협 실증 현장에 적용하고, 안정 재배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성축협 이춘항 조합장은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환원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풀사료 생산을 늘리는 것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상생하는 지름길”이라며 “국내산 풀사료 생산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풀사료 3모작은 한정된 농지를 연중 활용해 국내산 풀사료 생산을 늘리고, 농가 사료비 부담을 낮추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재배 기술과 우수 품종이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성축협 풀사료 3모작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계획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1-580-6740)
	조사료생산시스템과	담당자	연구사	최보람 (041-580-6743)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 방문 개요

- 목 적: 조사료 3모작 현장방문 및 생산농가-축협 현장 애로사항 청취
- 일 시: '26. 9. 4.(금), 15:30~16:30 (60분)
- 장 소: 보성축협
- 주요내용
 - 조사료 3모작 작부체계 및 축분퇴비 활용 등 현장 적용 현황 점검
 - 생산농가-축협 애로사항 청취 및 조사료 생산 확대 방안 논의

□ 참석자

- 내부: 농촌진흥청장님, 축산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장, 보성군 농축산과장, 보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 외부: 보성축협 조합장, 한국조사료협회장, 전국한우협회 보성군지부장, 보성 조사료 경영체 협회장, 경종농가 등

□ 세부 일정

시 간	분	내 용	비 고
9. 4.(금)			
~15:30		• 보성축협 도착	
15:30~15:45	15	• 조사료 3모작 현장방문 및 현황보고 * 현장 시찰 및 화판 보고	* (조사료과) 이상훈 과장 * (보성축협) 최양환 상무
15:45~15:50	5	• 이 동(간담회장)	
15:50~16:30	40	• 조사료 생산농가-축협 관계자 간담회 *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기술·정책지원 방안 논의	* 한우협회보성군지부 회의실
16:30~		• 이 동(보성 → 고흥)	